

맛의 도시 목포시, 으뜸맛집 간담회 개최

브랜드 설명·운영관리·영업자 준수사항 등 소개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 선두주자로서 역할 당부

목포시가 '맛의 도시 브랜드화사업'의 핵심인 으뜸맛집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11일 으뜸맛집 대표자와 '2021년 목포 으뜸맛집 간담회'를 개최하고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설명과 으뜸맛집 운영관리 방안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목포 으뜸맛집 미식 아카데미 교육 운영 ▲나혼자 남도밥상(1인 한상차림)사업 ▲음식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 등을 소개했다.

특히 으뜸맛집이 '맛의 도시 목포'

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긍지를 갖고 불친절, 불정결, 바가지요금, 1인 음식 제공 거부 등 관광객에게 반감을 사는 사항들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미진 목포의 맛을 알리고, 품격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도 당부했다.

김종식 시장은 " 으뜸맛집은 '맛의 도시 목포'의 얼굴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자부심을 갖고 원력을 지켜나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으뜸맛집은 목포음식관광을 이끌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맛, 청결, 서비스, 향토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19년 올해까지 3년 동안 137개소의 으뜸맛집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최근 과수·산림피해 외래해충 적기 방제 기술지원

영암군은 최근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의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기방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를 주는 해충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이다. 이들 해충은 국내에서 10여 년 전 처음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최근 4-5년 사이 발생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해충은 과수·산림의 줄기, 잎, 과실 등을 흡즙해 반점, 황화, 낙엽화하고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가지 내부에 알을 낳고 양수분의 이동을 막아 심할 경우 열매까지가 말라죽어 다음해 과실이

열리지 않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주로 피해를 주는 과수는 감, 매실, 포도 등이고, 산림은 대부분이 기주식물이다. 적용약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맞는 약제를 안전기준에 맞게 살포하면 된다.

영암군 주산작목인 감의 경우 외래해충방제약제와 기존 해충인 갑각지나방, 노린재, 깍지벌레와 방제약제가 대부분 겹쳐 별도의 약제구입을 하지 않고 기존 적용약제로도 방제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월동난 부화시기 예측을 통해 약충기 외래해충 적기 방제 기간을 5월 중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설정하고 적용약제를 살포하도록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작은영화관, 사운드로 가치를 더하다

대도시 멀티플렉스 못지않은 큰 스크린·최신 음향 갖춰

오는 19일 개봉예정인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9번째 영화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된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6월 25일 예정인 북미보다 한 달 앞서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하는 이유를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꾸준히 최신 영화도 개봉하며 철저한 방역관리

를 통해 극장에서의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광작은영화관은 대도시 멀티플렉스 못지않은 큰 스크린과 최신 음향설비를 갖추고 있다. 상영관은 1관 295인치, 2관 388인치의 화면으로 2K(Full HD급) 해상도로 상영된다. 오디오는 돌비사의 최고사운드

소, 사물, 음악 등 각각의 사운드가 살아 움직여 공간을 생동감 있게 채워 관객은 마치 영화 속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온전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화관 운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자 등록부 작성, 상영관내 한자리 띄어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음료만 가능), 환기, 1일 1회 이상 공간방역작업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한국생활개선 함평군연합회,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참여

마을 해안가 꽃길, 포토존 조성과 농업·농촌 환경 정비



한국생활개선 함평군연합회(회장 유순옥)가 전남도 역점 시책 사업인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 본격적인 마을가꾸기에 나섰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주, 광양과 함께 사업에 선정된 생활개선 함평군연합회는 11일 순북면 신기마을 해당화구역 다목적센터 입구에서 회원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회원들은 마을 해안가를 따라 팜파스그라스, 핑크물리, 가우라, 꽃잔디, 송죽엽 등 초화류 3000주를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과 포토존을 조성했다.

생활개선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꽃길과 포토존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함평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는 9월 자체 점검을 거쳐 10월 전남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준 기자

농업기술센터 김동표 소장은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원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아름다운 청정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찬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매년 1,000여 개 마을을 선정해 연간 300만 원씩 3년 간 총 9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한국생활개선 전라남도연합회 화가 도비를 확보하고 시행한 이번 사업은 1회, 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차년도 1회에 한 해 사업비가 추가 지원된다.

함평=김광준 기자

무안 양파사주기 운동 효과 '톡톡'

무안군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군청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파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생양파 12톤을 판매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고 11일 밝혔다.

조생양파 12톤 판매 등 기대이상 성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무안군은 산하 공무원을 포함해 목포대학교 등 관내 유관기관 10곳이 참여, 10kg(8,000원/방) 1,050방, 5kg(5,000원/방) 361방 등 총 12.3톤, 1천2백여 만 원의 양파를 구입하여 농

가 돕기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당일 ㈜한국인삼공사와 무안지색양파 42톤의 양파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안양파의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를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켰다.

김산 무안군수는 "양파사주기 운동 전개를 보여 주기가 아닌 군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무안양파 홍보 판촉 활동에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공직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